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 히브리서, 3차 세션, 히브리서 2: 5-18: 아들

안에 있는 소망과 도움 © 2024 데이비드 데실바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전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첫 번째 주요 논증 블록, 즉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 블록이 밑바탕에 있는 삼단논법을 기반으로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이 삼단논법을 아들 예수에 대한 찬사의 확언과 전반적인 논증에서 더 작은 단계로 상당히 장식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나머지 부분은 1장에서 소개된 강력한 그리스도론적 주제를 계속 발전시킵니다.

아들 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의 심각성에 무게를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지금까지 아들에게 반응한 결과로 이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잃은 청중에게 목회적 위로와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중심은 시편 8편 4~6절에 대한 저자의 그리스도론적 독해로,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영광으로 가는 길이 많은 아들과 딸들이 신성하게 정해진 운명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가야 할 길이라고 확립합니다. 저자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읽은 다음 예수께서 고난을 겪은 후에야 영광에 이르신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대해 숙고합니다.

인간의 곤경은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고 시련과 시험에 직면하기 위해 해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선견지명으로 아들을 그들의 개척자로 미리 준비시키셨고, 그를 그들보다 앞서 고난을 겪게 하여 영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현재의 불쾌한 경험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셨던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

절에서 9절에서 저자는 그가 설명할 시편 8편의 본문을 소개합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다가올 세상을 말합니다.

저자는 for라는 단어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아들의 말씀에 삶에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부름을 계속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의 다가올 세상이 신성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영역은 지금은 하나님과 거기에 사는 영적 존재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아직 인간이 접근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다가올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제거될 때 나타날 영역입니다.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다가올 세상을 아들의 권위에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세상에 들어갈 사람에 대한 권위를 주셨고, 따라서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다가올 영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는 아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할 원수로서 만날 것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껴안고 껴안겨 이 왕국에 환영받는 많은 아들과 딸로서 만날 것입니까? 저자는 이제 시편 본문 자체를 인용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증거하여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 이기에 당신이 그를 돌보십니까? 당신은 그를 천사보다 조금,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으로 씌우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원래 맥락에서 시편 8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를 기념하는 것으로 읽힐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염두에 두셨는가, 인간의 자식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들을 돌보아야 했는가라는 구절은 전통적으로 모든 필멸자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원래 시편에서 이 구절의 한 줄을 건너뛴 것은 의미심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당신 손의 일들 위에 두셨고, 창조에서 일반적으로 인류의

위치를 분명히 언급하며, 창세기 1장과 2장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라는 인류의 사명을 회상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8편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신 이 본문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해석을 소개합니다. “인자”라는 구절은 예수와 복음 전통과 자주 연관되는 칭호이며, 이것은 저자가 본문을 아들 예수에게 적용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인간과 관련된 성별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는 현대 번역은 종종 “인자”라는 구절을 보다 일반적으로 필멸자로 번역하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로부터 인간으로 옮겨가면서 이를 모호하게 합니다.

그것은 시편을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전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번역하는 데는 완벽한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본문에서 해석을 작동시키기 위해 무엇을 잡고 있는지, 즉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데 가장 좋아하는 방식인 인자의 정확한 언어를 완전히 모호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시편 본문과 저자가 해석한 본문 사이에 그리스어에는 없는 거리를 도입합니다. 시편의 칠십인역은 예수님에게 적용하기 쉽게 만드는 특별한 비틀림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낮게 두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창조의 사다리에서 천사보다 조금 낮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는 공간적 척도를 제공하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면 모호해집니다.

그것은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일 수 있고,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잠시 낮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시편의 성육신 적 독해를 만들어내고 예수의 행로에서 연속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두 번째 가능성을 활용합니다. 아들의 성육신은 천사들보다 낮은 지위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들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으로 씌웠습니다. 이 영광은 아들의 죽음과 승천과 신성한 영역으로의 복귀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의 회합에 뒤따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인 당신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히브리서 저자가 2장 9절에서 고백했듯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편 본문과 설교에서 앞서 낭송했던 시편 110편 1절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시편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저자가 본문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읽는 연결점이 됩니다. 저자는 9절에서 이 시편의 언어를 특별히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된 것을 보지 못하지만, 잠시 천사들 아래 복종되었던 분, 곧 죽음의 고난으로 인해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 독서에서 저자는 시편 본문을 예수의 삶과 지금까지 예수의 이야기에 대한 청중의 경험 속으로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해석에 한 가지 추가 부분을 도입합니다. 즉, 이 인자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이것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행해진 행위였고, 하느님의 은총의 표현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청중, 즉 수신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자기 희생의 행위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저자는 아직 시편의 주요 요점이 될 만한 것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영광과 존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저자가 이 시편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더 추구하면서 다음 세그먼트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저자가 시편 8편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 독서를 제시한 후, 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있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있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주역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였음 이니라 . 여기 서두에서, 합당하였으니라, 저자가 이 구절을 앞의 내용, 즉 예수께서 영광과 승천에 앞서 인간이 되시는 겸손을 먼저 견뎌내시고, 그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더 큰 겸손을 견뎌내셔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합당했나요? 저자는 여기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의 주역 또는 주역인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완전케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많은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히브리서 전반에 걸친 완벽한 언어가 주로 무언가를 운명지어진 발전 과정의 종착점으로 이끄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간단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 다른 맥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면서 완벽해집니다. 인간은 성숙에 도달했을 때 완전한 결실을 맺습니다. 고대 세계의 신비 종교에서 입문자는 입문 의식이 끝나면 완벽해집니다.

구약성경 칠십인역의 출애굽기 29장의 언어로, 제사장들은 서품 의식이 완료되었을 때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예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지각된 결함이 마침내 시정되었기 때문에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거나 인도하시는 그 종착점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완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 영역으로 돌아오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현존의 영원한 영역으로 다시 건너가셔서,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중재자로 그곳에 임명되셨다는 것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보편적 대제사장의 높은 지위로 인도하는 것이 왜 적절했을까요? 아마도 저자의 생각에 고난은 많은 아들과 딸들이 영광에 도달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견지명으로

하나님은 많은 아들과 딸들의 개척자, 그들의 구원의 선구자를 고난을 통해 여정의 종착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아들과 딸들은 아직 누리지 못한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저자는 여기서 예수께서 이미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거처인 영원한 영역에서 들어가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자는 시편 8편의 일반적 의미, 인류에게 속할 영광에 대한 진술로서의 시편 8편, 시편 8편의 일반적 의미가 성취되는 방식이 이제 그 전례적 예언이 성취되는 개척자이신 아들 예수의 대행을 통해서라고 제안하는 듯합니다. Doxa, 영광은 시편 본문과 히브리서 2장 7~9절에서 시편 본문을 낭송하는 데 모두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저자의 청중의 목회적 필요와 일치하는데, 명예, doxa 또는 timeh는 처음에 기독교 운동에 합류한 결과로 이 세상에서 정확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그들의 운명이 현재 그들을 지원하지 않는 이웃의 그늘 아래에서 삶을 경험하는 것처럼 불명예나 수치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은 높임을 받은 아들 자신이 누리는 바로 그 영광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킵니다.

아들의 영광을 예수가 개척한 길을 따르는 많은 아들과 딸들에게 올 영광과 연결한 저자는 이제 아들과 많은 아들과 딸의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구약 성경 본문을 독창적으로 적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또 다시, 나는 그를 신뢰하리이다. 또 다시, 보라, 여기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있나이다.

따라서 이 일련의 성경 인용문에서 저자는 시편 22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아들의 입술에 두어 마치 예수가 많은 아들과 딸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성경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나왔다고 말할 때, 아마도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보편적 형제애와 자매애에 대한 스토아 학파의 담론과 공명합니다. 예를 들어, 기원후 1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고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하늘은 우리 모두의 한 부모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레오바고 앞에서 한 연설에서 아라투스라는 스토아 철학자를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여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주로 모든 사람의 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대감에 내재된 존경을 아직 누리지 못한 많은 덜 고귀한 아들과 딸들과 함께 고귀한 아들의 연대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높임받은 아들과 이러한 연결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자는 그가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저자가 하는 이 주장은 아들 이 그의 자매와 형제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제시된 세 가지 권위 있는 텍스트의 낭송으로 뒷받침됩니다. 이 중 첫 번째, 나는 회중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는 시편 22편에서 발췌한 것으로, 초기 교회에서 메시아적 독서로 유명하게 주어진 시편의 끝 부분입니다.

이 시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합니다. 수난 서사의 초기 창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편의 서두 구절을 낭송하신 곳에서, 초기 교회는 이 시편에 대한 메시아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독해에 노출됩니다. 이것은 저자가 다음 단계에서 구약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적절한 틀로 예수의 입술에 올려놓음으로써 보이는 놀라운 해석적 움직임입니다. 그런 다음 다음

인용문으로 넘어갈 때, 그는 원래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단일하고 연속적인 본문을 두 개의 다른 인용문으로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이사야에서와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각 반쪽에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에서 나는 그에게 확신을 가질 것이라라는 진술은 선지자가 신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저자가 이것을 아들이 형제나 자매라고 부르는 각자에 대한 확신의 표현으로 듣도록 인도하고 있는데, 이는 히브리서 2 :11-13 에서 세 본문이 모두 이 제목으로 낭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인용문의 다음 부분인 보라,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있다라는 말은 원래 선지자가 자신의 자녀들에 관해 선언한 것이었는데, 지금의 맥락에서는 마하르-샬랄- 하쉬바스가 포함되었는데, 선지자는 이들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표적과 징조로 불렀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이것을 아들 자신이 한 신탁으로 여기며, 아들이 많은 아들과 딸들과 동일시하고 연대를 고백하려는 열린 의지를 더욱 증명합니다. 설교자는 여기서 이웃들이 현재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의 청중들이 지닌 명예에 대해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에서 2:9까지 대부분 그의 승영이 주제였던 아들은 믿는 이들을 충분히 존중했기 때문에 그들과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와 교제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그토록 확신을 두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신뢰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예수께서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얻으신 혜택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는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 이후로 자녀들은 혈육을 공유하였고, 그 자신도 같은 것을 온전히 공유하였습니다. 이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고, 평생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자는 아들과 많은 아들과 딸의 연대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 모두가 이제 혈육의 연약함을 공유하게 되었고, 저자는 현자나 영웅이 어떻게 추종자들을 죽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덕과 용기에 대한 인간의 헌신에 미치는 마비 효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와 실제로는 나중에 동시대 사람이었을 초기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예를 들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썼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소크라테스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의회에서 그에게 지정된 독 당근 잔을 받아들인 죽음과의 두려움 없는 대결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이 철학자들의 눈에 영웅이었고, 죽음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죽음의 그들은 절제된 정신을 가진 현자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옳은 일을 하려는 그들의 헌신을 불필요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네카는 그의 도덕적 서한 중 하나에서 이를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인류를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즉 죽음과 투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예수의 추종자들을 위해 더 큰 규모로 같은 일을 성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죽음에 두려움 없이 맞서는 현자의 철학적 주제를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 즉 하나님과 인류의 우주적 원수 사이의 우주적 전투에 대한 유대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종말론적 세계관과 결합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포로들의 해방 행위이자 그들의 영적 포로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는 외부의 강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도전과 상황을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치심, 비난, 재산 손실과 같은 그들이 마주친 이러한 희미한 죽음의 그림자에 의해 예수에 대한 충성심이 전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들을 해방했다는 이 선언은

충성심과 감사의 또 다른 원인이며, 또한 이탈을 예방하고 이러한 수신자들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명예를 증진하는 데 재투자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저자는 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돕기 위한 예수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비롭고 충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저자가 이사야 41장의 일부 구절을 확장하여 재맥락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선지자는 “내가 사랑하고 붙잡은 아브라함의 씨, 나는 너를 도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필멸자들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들은 자신이 구출 하고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 이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전 주제로 돌아갑니다 .

이런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효과적이고 예민하게 돕는 자이자 중개인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아르키레우스 , 즉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는데, 이는 설교자가 많은 아들과 딸들을 대신하여 예수가 과거와 현재에 행한 일을 조사하는 주요 범주가 됩니다. 고대 세계의 제사장들은 신성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제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인 폰티팩스는 문자 그대로 다리 건설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중재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사제가 이 영역의 인간을 그렇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신성과 연결하는 사람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것은 중개의 한 형태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후원자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귀중한 선물 중 하나는 후원자의 다른 친구나 더 높은 지위의 후원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후원자는 실제적인 도움의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 사람과 더 큰 자원, 즉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더 큰 후원자 사이에 연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제를 중개인, 중재자, 교량 건설자로 보는 고대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관계입니다.

저자는 아들의 고난이 어떻게든 후원자로서의 그의 능력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 여기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험, 시련과 시험과의 씨름은 유혹을 경험하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는 수신자 중 누구라도 여행하도록 부름을 받을 것보다 더 멀리 시험과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곤경에 동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가 만들어내는 불편함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지 못하는 곳에 결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청중이 예수께서 견뎌내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듣지 않고는 설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위대한 후원자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그를 많은 정경 동료들과 차별화합니다. 정경 동료들에서 예수는 제사장적 메시아보다 왕적 메시아로 더 자주 묘사됩니다 .

그러나 다윗의 아들인 왕의 메시아가 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제2성전 시대 전반에 걸쳐 일부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사제적 인물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2세기 초 대제사장직에서 일어난 이상한 발전, 특히 셀레우코스 군주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서 정상적인 대제사장 혈통이 단절된 데서 비롯됩니다. 당시 대제사장 지망생들이 이방인 왕으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입찰하고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직 전체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품었고,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유대에서 대제사장을 사칭하는 자들이 하는 일 대신 사제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미래의 사제에 대한 희망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해 두루마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제사장적 인물인 아론의 메시아에 대한 매우 두드러진 희망을 발견합니다. 쿨란의 거주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군주제를 회복시키고 사독에게 제사장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 두루마리 중 하나의 저자 중 한 명은 이 미래의 제사장이 그의 세대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그의 백성의 모든 아들들에게 보내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

그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과 같고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태양이 빛날 것이고 그의 불이 땅 끝까지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위로 비칠 것입니다. 어둠이 땅에서 사라지고 깊은 어둠이 마른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저자들은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가르침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제사장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제사장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희망에 대한 고대 세계의 가장 광범위한 증거 중 하나는 레위 유언장, 특히 18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 유언장의 끝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수가 그들에게 임하면 제사장직이 사라질 것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모든 말씀이 계시될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는 하늘 아래 모든 어둠을 제거할 것입니다.

영광의 성전에서 거룩함이 아버지 같은 음성으로 그에게 임할 것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까지 그러하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광이 그에게 터져 나올 것이요. 그리고 이해와 거룩함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대대로 그를 계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의 제사장직에서 죄는 그칠 것이다. 그리고 무법한 자들은 그들의 악행에서 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그에게서 안식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낙원의 문을 열 것이다. 그는 아담 이후로 위협해 온 칼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생명나무에서 먹을 것을 허락할 것이다. 거룩함의 영이 그들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벨리알은 그에게 묶일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레위의 유언과 같은 본문과 히브리서의 제사장적 그리스도론 사이에 몇 가지 밀접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직접 임명하신다는 기대를 발견합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의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어떤 의미에서 아들로 여기실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후계자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제가 죄를 그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제가 영원한 영역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레위의 유언은 이를 위해 낙원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저자 는 하늘의 안식이나 하늘의 나라, 심지어 하늘의 지성소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또한 제사장 메시아가 악마에 대한 의존의 원인을 옹호한다는 기대를 공유합니다. 레위의 유언에서 벨리알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모든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도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합니다. 제2성전 시대의 텍스트에 나오는 이러한 모델은 아직 신성한 영역의 참된 성소에서 기능할 천상의 대제사장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메시아의 중재 기능은 이러한 텍스트에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도 약화됩니다.

그리고 죄를 위한 정화 제물로서 제사장 메시아의 자기 희생이라는 생각과 같은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이 유대인 유산에서 물려받았을 수 있는 전통에서 상당한 혁신가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은 여러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저자의 수사적 전략에 기여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청중의 초점을 예수께 맞춥니다. 예수는 설교자가 청중이 보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정신의 눈 앞에 두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청중 앞에 있는 영광의 소망을 강조하여, 현재 상황에서 명예가 뚜렷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뎌내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저자는 또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희생으로 인해 청중에게 온 혜택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중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직면하게 될 시련에 적응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더 효과적인 중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와 충성심으로 예수님과 계속 일치하면 청중에게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고귀한 길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저자는 또한 듣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그들의 헌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직면해서도 확고부동하게 남아야 할 모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어떤 유혹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부분은 또한 특정한 도전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의 제자도의 여정에 끊임없이 기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서 보듯이, 우리와 함께 그런 믿음을 지키셨던 분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도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견뎌내신 모든 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위해 견뎌냈다는 저자의 메시지를 스스로 마신다면, 어떤 어려움, 시련, 고난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고귀한 행동 방침이 됩니다. 저자는 또한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 상황에 처해 있든, 예수님은 현재의 도움이시며 그 유혹이나 시험의 에피소드를 무사히 통과하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주로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이키려는 충동에 의해 유혹을 받을 때, 너무나 자주, 우리는 예수님을 그 유혹의 상황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리고 시험을 통해,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이 우리를 위해 선택할 길에 적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 상황에 데려오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의 회중에게 예수께서 현존하시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저자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는 습관을 배우고, 그 순간 예수께 기도하며 그를 초대하여, 그가 시험이나 유혹의 상황에서 우리를 들어올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의 현존과 모범을 통해 지속적인 온전함과 영광으로 이끄는 길을 상기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길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외부의 압력에 직면해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또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도록 도전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외부의 강압이나 상실 또는 더 나쁜 것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용기를 무너뜨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목격했던 불의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을 소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신이 우리를 부르는 삶에 투자하려는 우리의 헌신을 무너뜨리고, 이 삶에는 끝이 있고, 그 후에는 큰 미지수나 아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삶과 이 삶의 것들을 위해 점점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능 장애적인 방식으로 몰아넣어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여기서 어떤 영속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해체나 무(無)에 의한 해체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잔여감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과도한 성취로 이끌고, 우리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려고 시도하게 하고, 어떤 욕망이나 필요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일종의 보호막이 되는 우리 자신을 위한 보물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규제하고 혼란을 멀리하려고 할 때 강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에 대한 신의 의도를 전복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추종자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하셨다는 이 선언에서 저자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무엇이 되는지, 죽음이 우리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에 진정으로 취한다면 인간의 삶이 무엇이 되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운명지어진 것이 이 물질적 창조물이 아니라면 어떤 것인지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큰 개인적 상실과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그러한 지향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방어 추구의 얽힌 올가미에서 끌려나와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다르고 더 위대한 하나님 중심의 의제를 섬길 수 있는 구명줄을 던져줍니다.